

“광주 민주정신 세계화 기필코 이뤄내겠다”

●윤남식 제3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 취임

위상 회복·회원 권익 확대·공법단체 회관 조성 추진
“서로 존중함으로써 존경받는 공로자회 만들자” 강조

“민주주의 회복과 완성, 진전을 위해 5·18 공로자회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남식(71·사진) 제3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이하 5·18 공로자회) 회장은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단체 정상화 및 환경 개선, 회원들의 권익·복지 확대’를 다짐했다.

취임식은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문종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부회장, 김중술 국가보훈부 과장, 5·18 공로자회 회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취임사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바로서는 오월! 다시 민주주의로...’ 컨퍼런스 등이 이어졌다.

윤 회장은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가 되는 해이다. 우리들은 그동안 희생과 고난,

비난과 질시, 반목과 갈등 등을 겪어왔다”며 “이제 방황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서로 부둥켜안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5·18 공로자회 대외적 위상 회복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오월 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공론화·국제적 연대 매진 ▲무급자의료급여·8차 보상·후원금 유지 통한 회원들 권익과 복지 향상 ▲5·18 공법 3단체 회관 조성 ▲규정 및 정관 개정 등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5·18 공로자회가 공법단체가 됐음에도 여전히 편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를 막기 위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5·18 공법 3단체 회관 조



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라우마·후유증을 겪는 단체 회원들을 보살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 5·18을 상징하는 공법 단체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월 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 마련을 위해 마련된 2부 ‘바로서는 오월! 다시 민주주의로...’ 컨퍼런스에서는 일부 5·18 공로자회 회원들이 제기한 ‘5·18 공로자회 총회결의 무효 확인’, ‘5·18 행사위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징계사 4명을 제외한 총회 참여 가능 인원 68명 중 36명 참가·2명 서면결의서 제출로 과반인 36명이 참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참여 의사를 물으며 지난해 2월 19일 사태(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에 대해 5·18 공로자회 이름으로 시민단체에 사과한 후 참여하라고 제안했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를 뺐 참가 여부를 묻는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서로 존중함으로써 존경받는 공로자회를 만들고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 역사와 전통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임기 내 광주 민주정신의 세계화를 기필코 이뤄내도록은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광양경찰, 우범지역 범죄예방 민관 합동순찰

광양경찰서는 “최근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없는 광양 만들기’를 위해 민관 합동 참여자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치안 활동에는 시민경찰과 자율방범연합대가 함께했으며 유동인구와 112신고가 집중되는 금요일에 중마동 사랑병원, 유흥업소, 미관관광 주변 등 범죄 취약지 일대를 순찰했다.

최병윤 광양경찰서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역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자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장흥경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장원마루에서 범죄 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범죄 예방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최근 범죄 발생 현황 분석, 치안 동향 파악, 기능별 범죄 현안 발표, 범죄 예방 대책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한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치안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담양 중앙파출소,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

담양 중앙파출소는 “최근 자율방범대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순찰은 장병철·오성순 자율방범대장 등이 대화가 골목길과 주거지역 주변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성택 담양 중앙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모임

▲담양 크린동우회(회장 박병근) 4월 모임=23일(목) 오후 6시30분 로빈식당, 담양군 일산면 도계길 15-69(총무 서동선 010-4602-9480).

행사

▲담양 대진농협 종합청사 및 영농자재백화점 준공기념식=23일(금) 오전 10시30분 대진농협 2층 대회의실, 담양군 대진면 추성로 208 대진농협(조합장 최용규, 061-383-6791·3).

▲담양시장 개장기념식=23일(금) 오후 2-3시 담양시장 정문 광장,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23일(일) 낮 12시30분 샌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스(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사다리채 1층 루체움(062-710-4000).



목포대 학생 40명, 전남개발공사 기업 탐방

전남개발공사는 23일 “전남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 및 지역 협력 사례, 우수 취업 사례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목포대학교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 전남도 유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업무 현황 견학을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40명과 인솔 교수 2명 등이 동행했다.

이날 임주선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장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분야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진로 상담 시간에 공사 입사 자격 요건, 면접 주요점, 복지 수준,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장성만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장은 “도시계획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전남개발공사 탐방은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치 명가 고담채, 목포시에 김치 500박스 기탁

신세계F&B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고담채는 “최근 2천500만원 상당의 맛김치 500박스를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탁된 맛김치는 텃밭 맛이 풍부한 남도식 식박지로, 경로당 20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각각 전달됐다.

고담채는 지난해 9월에도 2천만원 상당의 김치 400박스를 지정 기탁하는 등 매년 김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공홀 고담채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작은 정성으로 김치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업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나눔이 필요한 시기에 온정을 나누는 고담채에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에과도르 해군참모총장, 해양경찰교육원 견학

해양경찰교육원은 23일 “전날 에과도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무관 등이 해양경찰교육원을 찾아 시설과 장비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에과도르 해양경찰 격인 해안경비단(Coast Guard-해군 산하) 교육원의 최첨단 교육훈련 시스템과 시설 등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미겔 코르도바(59) 에과도르 해군참모총장은 여수신항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바다로함(실습함정)에서 교육원장과 환담 후 합동 견학을 실시했다.

또 드론·소화방수·해양구조·함정시뮬레이션 등 실습장을 방문해 교육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설 장비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김진선기자



에과도르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해양경찰 교육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에과도르의 해군력 증강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협력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농협영광군지부·청소년자람터 오늘, 책가방 세트 전달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는 “최근 청소년자람터 ‘오늘’과 함께 영광군 중·고등학생에게 학습용 가방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된 가방은 학습용 및 보조 가방으로 총 100세트(1천500만원 상당)이며, 영광군에 소재한 학교방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사회단체를 통해 각 지역 학생들에 전달된다.

조기영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은 “이번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는 이웃과 나누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순천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순천농협은 23일 “전날 농협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순천농협 로컬푸드 출하농가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안전관리제도 등 농산물 안전성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와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조치, 농가의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생



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규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로컬푸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천 농산물 전체가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과 안전 조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양홍렬기자

나주경찰, ‘준법 집회문화 정착’ 자문위원 활동

나주경찰서는 “최근 준법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집회에 집회시위자문위원들이 직접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집회시위자문위원들은 민주노동당 전기원노조가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 광장에서 개최한 ‘배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참관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법 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집회·시위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그간 집회 사례 검토 위주 회의에서 벗어나 경찰 활동에 직접 참여해 준법 집회 문화·경찰 법 집행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고, 집회 현장을 참관해 평화적 집회에서는 관찰자, 불법 집회·경찰권 남용에서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주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관계자는 “나주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집중된 만큼 집회시위자문위원들의 공정한 자문으로 성숙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